

송당 박영과 일재 이항 간의 도학의 전승구조에 대한 연구

- 「백록동규해」를 중심으로 -

박 근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시간강사)

- I. 서론
- II. 송당 박영과 일재 이항 간의 도학의 전승
- III. 「백록동규해」의 도학의 전승구조
- IV. 결론

〈국문초록〉

소학과가 존심양성(存心養性)을 위주로 한 학문적 차제를 중시 여긴다면, 송당학파는 자득을 강조하며 각자의 근기에 맞게 도학을 전수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러한 송당학파의 학문적 경향성은 문자에 치우친 당시 학자들과 견주어 볼 때 오히려 성리의 정도로써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자득 이전의 존심양성의 부재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된 바가 없다. 송당과 일재의 경우는 당대 최고의 명공이었기 때문에 자득 이전에 무예수련이 선행되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무예수련이 어떻게 존심양성(存心養性)을 대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예수련과 도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남겨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 송당과 일재 간의 도학의 전승 텍스트였던 「백록동규해」에 주목하게 되었다. 「백록동규해」에는 활쏘기와 도학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가 구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로써 송당학파는 별도의 도학적 전승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도학의 정통으로써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주제어 : 송당학파, 「백록동규해」, 활쏘기, 송당 박영, 일재 이항

I. 들어가며

김굉필에서 신당 정붕, 송당 박영, 그리고 일재 이항으로 이어지는 송당학파¹⁾는 소학과와는 매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소학파가 존심양성(存心養性)을 위주로 하는 학문적 차제를 중시 여긴다면, 송당학파는 자득을 강조하고 각자의 근기에 맞게 도학을 전수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당시 일반적 학문구조와는 다소 이질적인 것으로 성리학자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선행 연구(박근, 2022)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신당과 송당 간의 전승구조는 철저한 도학의 전승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기지학(爲己之學)을 바탕으로 명덕을 직전(直傳)해 주었으며, 이를 위한 방편으로 신당은 송당에게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해 명덕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송당은 활연관통(豁然貫通)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판단해 본다면 송당학파의 학문적 경향성은 성리의 한 축으로써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성리의 한 축으로 인정하기에는 송당학파의 자득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존심양성(存心養性)의 부재에 대해서는 쉽게 용인하기가 어렵다. 송당은 ‘자득이후에 존심양성(存心養性) 한다’고 하였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자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선행적 조건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송당(1471-1540)과 일재(1499-1576)는 도학에 입문하기 이전에 이미 당대 최고의 명공들이었다(박근, 2019: 26). 따라서 명공에 도달하기 위한 무예수련이 도학적 자득 이전에 선행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자득 이

1) 송당학파에 대한 연구는 김훈식(2012, 2015), 김성우(2009), 김학수(2010), 권상우(2016), 이구의(2014), 장운수(2017), 차장섭(2013), 황지원(2018)의 논문을 참조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진행상 송당학파를 김굉필 이하 신당 정붕과 송당 박영, 그리고 송당의 문인, 문인 중에서 일재 이항으로 한정한다.

2) 『栗谷全書』 卷13 「擊蒙編跋」: “學者必操養之, 然後乃有所得, 若不操不養則寧有所得乎? 且所謂存養者, 存其心養其性也. 心性是我 本有底, 豈得於他乎? 是故, 孟子之所謂自得者, 在於深造之後, 若使學者, 先求自得而後, 乃存養則其不陷於異學者, 幾希. 松堂之言論風旨, 世不多傳, 曾聞退溪評松堂之學, 帶得禪味云, 無乃指此等處耶?”

전에 선행될 존심양성(存心養性)적 측면을 무예수련이라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소학적 의미에서의 존심양성(存心養性) 또한 기질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치열한 무예수련이 기질변화를 가져온다면, 무예수련이 존심양성(存心養性)을 대신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무예수련이 자득에 도달하기 이전의 선행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활쏘기의 수련을 통한 자득이 곧 도학적 자득이라 단언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활쏘기의 수련을 통해서도 활쏘기에 있어서의 자득에 도달하게 될 뿐이다. 활쏘기를 통한 자득은 활쏘기에 국한된 자득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만약 활쏘기와 도학의 자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면, 비로소 활쏘기를 통해 도학적 자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전승구조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요지는 활쏘기의 자득을 도학의 자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별도의 구조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구심은 일재의 도학이 반드시 활쏘기와 성리를 연결한 결과로 얻어졌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무예와 상관없이 도학에 입문한 결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송당과 일재 간의 도학전승이 활쏘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리라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송당과 일재의 도학전승의 텍스트로 등장하게 되는 「백록동규해」 때문이다. 「백록동규해」에서는 활쏘기와 도학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송당의 의도가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백록동규해」 속에 활쏘기를 통한 도학의 전승구조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좁힐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전승구조가 확인된다면 송당학파는 별도의 도학의 한 축으로 인정되어 질 충분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본 연구는 성리학의 이론적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백록동규해」가 송당이 일재에게 전해준 도학전승 텍스트라면, 일재와 같이 활쏘기에 매진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을 것이다. 당시 일재가 성리학에 대해 문외한에 가깝기 때문에 성리학적 이론구조의 적확성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심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이론적 분석의 접근은 오

히려 이러한 진의를 파악함에 있어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재의 입장에서 「백록동규해」에 담겨진 심의를 하나하나 더듬어, 일재가 활쏘기를 통해 얻어진 자득이 어떻게 성리의 자득으로 전환되는가의 실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³⁾

그러나 도학적 입장에서의 이론적 분석 또한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에 대해서 거론하기에는 본 내용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기에 이론적 관점에서의 적확성 여부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다루고자 한다.

II. 송당 박영과 일재 이항의 도학의 전승

「백록동규약」과 일재는 일찍부터 인연이 있었다. 당시 스물여덟 살의 협객시절 우연히 벽에 걸린 「백록동규약」의 내용을 듣고 기묘명현들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황약유오(恍若有悟), 크게 깨달음이 있었다고 문집은 기록하고 있다.

선생은 거칠고 방탕하여 매임이 없었다. 백부가 크게 꾸짖으니 선생이 이에 크게 놀라 무리를 떠나 비로소 배움에 뜻을 두었다. 한 날에 이웃 생원 고한좌의 집을 지나다가 벽 위에 걸린 「백록동규약」을 보았다. 기묘명현들의 과정을 듣고 나니 크게 깨달음이 있었다. 드디어 뉘우쳐 가로되 ‘한 생을 잃을 뻔 하였구나’ 하고 이에 분발하고 격려하여 『대학』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다⁴⁾.

그간의 협객의 생활을 청산하고 학문으로 발을 내딛게 된 계기가 바로 「백록동규약」이었다. 불과 5구로 된 짧은 글을 읽고 그리고 기묘명현들의 억울한 내막을 알고 나니 일재는 비로소 그간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게 되었다고 한다.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심하여 이듬해

3) 본 연구자도 무예와 활쏘기를 수십 년 간 수련해오고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에 일재의 입장에서 본 연구를 시작할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4) 『一齋先生文集』 86쪽: “丙戌世宗嘉靖五年(中宗二十一年 先生二十八歲), 受伯父判書公敎訓, 先時, 先生疏放不羈, 判書公呵警之, 先生, 乃瞿然自失, 立謝其黨, 始志于學. 一日, 過隣生高漢佐, 見壁上揭白鹿洞規, 聞知其爲己卯學者課程. 恍若有悟. 遂慨然曰幾失此生. 於是奮發激勵, 折節讀大學, 旬讀己解處, 晨夜不輟.”

일재 나이 스물아홉(중종22년)에 대학책을 끼고 도봉산 망월암에 들어가 각고의 공부를 시작한다.

선생이 처음 배움을 향할 때에는 몸에 뻐 기운이 사납고 거칠어서 제어하기가 힘들었다. 자리 옆에 전후좌우로 칼을 꽂아 놓고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수년이 지나자 거동이 법에 맞게 되고 뜻과 기운이 뭉쳐지기 시작했다. 선생이 이로부터 마음을 거두고 무릎을 꿇고 앉아 혹 외기고 하고 혹 생각하기도 하여 요점을 반드시 체인심득(體認心得)한 이후에 그쳤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얻음이 있었다.(…) 선생에게서 광채가 더욱 드러났다. 중들이 당에 모여 싸우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서는 스스로 가로되 “마음이 형체에 부림을 당하니 어찌 공을 지으리오”하였다⁵⁾.

일재는 망월암에서 수 년 간의 독학을 통해 상당한 공부의 성취를 얻게 된다. ‘마음이 형체에 부림을 당하니 어찌 공을 지으리오’라는 구절에 있어서는 마음의 본체에 대해 견득 했음을 알 수 있다. 소위 견성을 한 것이다. 그러나 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때의 수행방법이나 성취된 공부는 지극히 불가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대학』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이때의 수행방법은 정(靜)을 위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끌어 주는 선생 없이 주정(主靜)적 수행은 자득에 있어서 불가적 견성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일재 스스로도 이를 인식했던 것 같다. 소위 불가적 견성처에서는 『대학』을 일이관지(一以貫之)할 수 없었을 것이다⁶⁾. 따라서 이러한 괴리감이 스승을 찾아 길을 나서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때 일재가 찾아 나선 이는 송당 박영이었다. 구태여 선산이라는 먼 거리를 찾아간 이유는 서로 간에 통하는 것이 있어서였다. 후대는 이를 기미(氣味)가 같기 때문이라 표현한다⁷⁾. 기미가 같다는 의미는 송당이 자신과 같은 무인이자 명궁이었고

5) 『一齋先生文集』 87쪽: “先生初向學時, 習氣豪悍, 苦難制伏. 於坐傍前後左右挿劍, 使身不得靠盤俯背. 如此積數年, 起居中度, 志氣凝定云. 先生, 自是收心危坐, 或誦或思, 要必體認心得而後已, 蓋久而沛然有得也. (….) 先生, 精采彌露. 會緇流闢堂, 且起視, 旋自訟曰 ‘心爲形役 烏乎做工?’ ”

6) 『松堂先生文集』 卷2 「大學經一章演義」: “欲以徑超頓悟, 爲事者, 佛老之學是已, 烏識吾儒之所謂大學哉?”

7) 『一齋先生文集』 265쪽: “聞松堂朴公英, 居善山, 徙步往從之, 朴公以武, 進官亞卿而還

어느 날 낙향하여 학문을 이루었다는 사실에서 동질감을 느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선생(송당 박영)이 성종 조에 무예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갔으나 세자의 음난함을 보고 사직하고 선산으로 돌아가 크게 변하여 도를 이루었다. 고로 (일재는) 선생의 풍모를 듣고 거듭 나아가 뵈고 오래 그 문하에 있었는데 본령의 위에 깨달은 바가 많이 있었다. 박선생(송당)이 백록동규에 주해하여 문인에게 보여주니 선생(일재)이 더욱 친하고 간절하게 깨달게 되었다. 이때(경자년 3월, 선생 42세)에 박선생의 부음이 이르자 선생이 분곡하고 심상을 예법에 따라 하였다.⁸⁾

송당은 무예로 이름을 떨쳤으나 낙향하여 학문에 힘써 도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일재는 깊은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일재는 천리길을 걸어 송당을 찾아간다. 60대 노년의 송당도 자신을 찾아온 삼십대의 젊은 제자 일재 이항에게 많은 호감이 있었을 것이다. 자신과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애착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내 견득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것이다.

일재가 송당을 스승으로 섬겼다는 것은 송당의 견득을 인정하고 본인의 견득을 버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일재 본인의 견득처가 옳다고 생각했다면 송당에게 머물며 스승으로 섬기지 않았을 것이다. 일재가 송당을 스승으로 섬겼음은 송당의 부음을 듣고 심상 3년의 예를 행한 것으로 보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일재는 본인의 견득처를 버리고 송당의 견득처를 구하고자 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즉 이전의 불가적 견득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로소 송당과 일재 간의 사제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성리의 전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곡 성운과 일재 이항이 다 일찍이 멀리서부터 와서 배우기를 청하니 그 마침과 처음을 성취한 자라⁹⁾

鄉, 讀紫陽書, 蓋與公, 氣味相根也.”

- 8) 『一齋先生文集』 92쪽: “朴先生, 成廟朝, 以武出身. 見世子淫亂, 辭歸善山, 一變至道, 故先生, 嘗聞其風, 而重繭往謁, 久在其門下. 於本領上, 多有所契悟焉. 朴先生, 以所註疏白鹿洞規, 揭示門人, 先生, 益覺親切. 至是, 朴先生訃至, 先生, 奔哭心喪如禮.”

송당의 문집에 언급된 일재 이항에 대한 평가는 대곡 성운과 더불어 송당 학문의 마침과 처음을 성취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많은 제자 중에서 단 두 사람만이 송당 도학의 처음과 끝을 성취했다는 것이다. 일재가 머물며 공부했던 기간에 비해 일재는 송당의 도학의 정수를 계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당은 일재의 자득, 소위 불가적 자득을 비판하며 성리의 정도를 전수해 주고자 하였을 것이다. 불가적 자득과 성리적 자득의 차이점은 우선 방법상에 있어 주정(主靜)과 주경(主敬)의 수행 방법론에 있다(박근, 2020). 불가적 자득은 선정을 통해 자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에 반하여 성리의 자득은 경법(敬法)을 통해 얻어지게 된다. 일재는 비록 자득에 도달했을 지라도 불가적 자득을 통해서 『대학』을 통투할 수 없었다. 불가적 자득은 마음의 본체를 밝힐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대학의 명덕과 활연관통, 그리고 팔조목을 일관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미미한 차이는 이토록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이를 자각한 일재의 문제의식이 일재를 송당에게로 인도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송당은 새로운 성리의 경지를 제시해 주었을 것이며, 일재를 위해 기질에 합당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백록동규해」는 일재 한 명에게 지어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내용을 접한 이들의 평가를 본다면, 다른 이들에게는 그다지 직접적인 도학 전승의 텍스트로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규해 속에는 극히 무미처가 있으니 더욱 가히 힘을 쓰지니라. 그러나 무미처를 아는 자는 적으리니 무미 중에 맛을 아는 자는 더욱 적으리라. 이 맛을 얻어 마치면 이 규해는 풀어지리니 또한 (이에 도달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¹⁰⁾

송당 문집의 발문에 실린 문인 황효현의 글에서는 「백록동규해」는 그 문장도 너무나도 쉽고 평범하여 조금도 오묘한 맛을 찾기가 어렵다고 기록되어 있다. 설

9) 『松堂先生文集』 卷4 5쪽: “四方學者, 翕然歸之, 如大谷成公運, 一齋李公恒, 皆嘗遠來請業而其終始成就之者.”

10) 『松堂先生文集』 卷3 6쪽: “解中有極, 無味處, 尤可着眼. 然知無味者, 鮮矣. 得無味中味者, 亦鮮矣. 得此味而了, 此解則解, 亦可無也.”

령 묘미가 있는 것을 알아도 너무 단순하여 맛을 알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백록동규해」가 송당의 진전(眞傳)이라는 것은 알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무미하 기만 할 뿐 친절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이다. 본 내용의 저자는 송당의 문인 중 한명에 불과하지만 송당 문집에서 「백록동규해」에 대한 평가는 두 편만을 찾을 수 있었고, 두 내용 모두 대동소이하다. 훗날 이에 대해 평가했던 퇴계의 글만 보더라도 「백록동규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¹¹⁾. 그러나 일재는 「백록동규해」를 통해 무미건조한 것이 아닌 매우 친절하게 자득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백록동규해」가 송당과 일재 간의 비의적(秘意的) 전승구조라 추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본 연구자도 「백록동규약」은 수년을 통해 배울 그런 내용도 분량도 아니기 때문에 일재가 송당에게 배운 주된 텍스트로서 「백록동규해」를 명시한 것에 대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되었다. 사실 「백록동규약」은 5구의 단문으로 된 지극히 단순한 내용이다. 이에 주해한 것이 「백록동규해」이지만, 내용 상 도학적 심의를 전승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미 자득을 하고 온 일재 이항에게 가르쳐줄 내용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명확히 일재의 문집에는 「백록동규해」가 매우 친절하게 다가왔고, 이를 통해 성리의 진전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소위 신당이 송당에게 도학을 전승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청산대학에서는 글자에 매이지 말고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본의를 직시하라는 뜻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에 수년의 발분 끝에 송당은 치지(致知)에 도달하였고, 송당은 드디어 『대학』의 궁극처인 활연관통처(豁然貫通處)를 열게 된다. 이러한 전승구조는 송당에게 이미 자득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옛적부터 도학으로 세상에 이름이 있는 자는 모두 문장을 탐구하고 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라. 오직 우리 송당 박선생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 비로소 무예에 매진함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관에 출사하여 금직하던 어느 날 밤에 눈물을 흘리며 비로소 성인의 근기를 지어 용맹히 정진하여 힘써 행하여 의연히 이 도로써 내 직분을 삼으시니 ¹²⁾

11) 『退溪集』 卷之十九 「答黃仲舉論白鹿洞規集解」

12) 『松堂先生文集』 拔 3: “自古, 以道學名世者, 皆由探文讀書而得. 而惟我松堂朴先生則

송당은 무예에 정진하며 무관으로 입신하던 도중 우연히 일직을 서던 한 밤중에 홀연 눈물을 흘리며 대오각성하게 된다. 이후 선산으로 내려와 도학에 입문하고자 하지만 혼자서 『대학』을 독공하는 정도였다. 신당은 우연히 송당을 보고는 그의 근기를 알아보게 된다. 그리고 질문을 던진다. ‘냉산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신당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한 송당은 발분하여 수년 만에 답을 구하게 된다. 활연관통(豁然貫通)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신당은 송당에게 『대학』을 통해 활연관통(豁然貫通)으로 유도한다. 이는 송당의 관심사가 『대학』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활연관통(豁然貫通)을 유도한 신당의 가르침은 자상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날카롭고 거칠고 오만하다고 까지 할 수 있다. 이에 송당의 모진 발분이 합해져서 소기의 결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이미 활연관통(豁然貫通)에 도달한 송당은 당연히 일재에게도 그러한 경지로 유도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일재 또한 무인으로써 송당과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일재는 「백록동규약」의 내용을 듣고 각성을 하였다. 이후 불암산에서 모진 독공에 의해 각성은 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불가적 각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당과 송당 간의 도학의 전승구조에 비해, 송당과 일재 간의 전승구조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신당은 송당의 자득에서 이미 도학의 씨앗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를 키워주어 자연히 활연관통(豁然貫通)에 도달케 해 줄 수 있었지만, 일재의 경우는 불가적 자득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시키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송당과 일재 간의 전승 텍스트가 「백록동규해」인 것은 일재의 처음 각성처가 「백록동규약」에서 부터였기 때문이 아닐까 추론해 본다. 이에 송당은 「백록동규약」에 주를 다는 형식으로 사서삼경을 요약하여 유학의 심의를 담고자 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의주시할 사항은 일재가 가진 기질, 즉 활쏘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이다. 「백록동규해」에서는 도합 세 번의 활쏘

不然, 其始未免馳騁於武藝, 至決科筮任而禁直一夜之淚, 遂爲作聖根基, 勇往力行, 毅然以扛功斯道, 爲己任.”

기에 대한 내용이 인용되고 있다. 세 번의 활쏘기는 모두 결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백록동규해」의 결론을 활쏘기의 심의로 귀결시키고자 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활쏘기와 도학을 연결시키고자 한 송당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전승구조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송당 또한 당대 이름난 활쏘기의 명궁으로써 활쏘기를 통한 자득에 도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신당과 송당 간의 전승구조에서 활쏘기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신당에게는 활쏘기를 통한 자득이 담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송당과 일재의 전승구조는 양자가 모두 활쏘기의 명궁이었기에 가능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송당과 일재의 전승텍스트인 「백록동규해」속에는 활쏘기의 심법과 성리의 심법이 자상히 융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일재가 도학의 진수를 터득했다는 것은 송당에게 배운 직후 돌아와서의 행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생이 문을 닫고 사림을 쉬고 가로되, “동지를 찾는 것은 이익이 없으니 방안에 단좌하여 도의 오묘한 곳을 얻음에 더욱 채찍질하는 것만 못하다”하였다¹³⁾.

일재는 더 이상 벗을 찾지 아니하고 두문불출하며 도의 근원을 음미하게 된다. 본 문장에서 ‘도의 긴요한 곳을 얻고 음미하여 더욱 채찍질하다’는 도의 근원을 명확히 체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때의 일재의 자득처가 태극이었음은 이후 고봉 기대승과의 논쟁과 퇴계의 평가 등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근, 2019:29-31). 따라서 상기의 내용으로 볼 때 「백록동규해」는 송당이 일재에게 전해준 도학의 전승텍스트였음이 확실시 된다.

그렇다면 「백록동규해」의 내용 속에는 상기 도학의 전승구조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을까?

13) 『一齋先生文集』 93쪽: “先生杜門息交曰 ‘尋同志無益, 不如端坐一室, 做得喫緊鞭辟之工.’ ”

Ⅲ. 「백록동규해」의 도학의 전승구조

五教之目 第1 :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爲學之序 第2 :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辯之 篤行之
修身之要 第3 : 言忠信 行篤敬 懲忿窒慾 遷善改過
處事之要 第4 : 正其義 不謀其利 明其道 不計其功
接物之要 第5 : 己所不欲 勿施於人 行有不得 反求諸己

『송당선생문집』¹⁴⁾에 수록된 「백록동규해」는 총 21쪽의 단문이며, 「백록동규약」에 주를 다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백록동규약」은 5구의 단문이다. 본 「백록동규해」에서는 5구가 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백록동규해」이 후에 별도로 2구를 붙여 또 한 단락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2장 뒤에는 별도의 송당의 견해를 첨부하여 한 단락을 만들었다. 따라서 모두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1쪽의 단문이지만 그 인용된 문장은 사서삼경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중용』의 인용은 다른 문장의 인용과는 달리 『중용』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문장 전체를 실어 놓았으며, 「백록동규약」을 마무리 짓는 1장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때 인용된 『중용』은 5구로 구성된 「백록동규약」에 대한 결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용된 『중용』에서도 12장과 13장, 14장의 3장의 내용을 활쏘기의 심의로 내용을 귀결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용』 전체로 볼 때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문장은 『중용』 33장 중에서 일부에 해당하며 결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송당은 본 「백록동규해」의 결론 부분에 인용하면서, 『중용』에서의 의미와는 다소 다른 의미로 전환시키게 된다.

이렇듯이 활쏘기의 심의로 내용을 귀결시키는 문장은 총 세 차례 등장하며, 이때의 문장은 「백록동규해」에 인용되면서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전환된다. 이러한 구성이 「백록동규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4) 본서의 저본은 1905年刊 삼간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장본을 사용하였다. 본 문집은 목록·본집 2권·부록 2권으로 도합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에는 시 19제, 서 2편, 기 2편, 묘지 2편, 잡저 2편이 실려 있는데, 잡저편에 「백록동규해」가 실려 있다.

전체적으로 「백록동규해」는 유학의 기본적 서술구조인 술이부작(述而不作)의 방식을 주지하고 있다.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모두 사서삼경의 문장이나 주해를 그대로 인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술이부작(述而不作)의 구조 또한 본 「백록동규해」가 도학의 텍스트로써의 역할을 유념에 두고 저술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송당이 직접 저술한 문장은 오교지목(五敎之目) 제 1구에 약간 언급되어 있고, 주된 내용인 1장과 2장에는 첨부되지 않았다. 그리고 2장 이후에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백록동규해」의 표면적 구성은 「백록동규약」에 주를 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주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송당은 「백록동규약」을 통해 송당학과의 학문적 체계를 주입하고자 하는 의중을 가지고 저술되었다. 그리고 더 깊은 이면에는 활쏘기와 도학의 심의를 연결하고자 하는 한층 비의(秘意)적 구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의와 심의의 다중적 서술구조, 표층구조와 심층구조가 중첩되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도학텍스트의 기본적 구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다단한 양상 속에서 일재에게 전해지는 심의를 간파해 나아가는 것이 본 연구 성패의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는 「백록동규해」를 일재의 입장이 되어 하나하나 밝아 나가 보도록 한다. 비록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일재가 얻었던 심의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1) 五敎之目 第 1: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첫 부분에서 송당은 일재에게 전승하고자 하는 도학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송당은 “오륜의 이치는 사람마음의 본연에서 나온다”고 천명한다. 「백록동규약」을 전승 텍스트로 삼은 의도 또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륜으로써 마음의 근본처를 제시하여 불가적 견성처와의 차이를 자각토록 한 것이다.

대개 오류의 이치는 마음의 본연에서 나옴이니 강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님이라. 스스로의 기질에 치우쳐 가리워지고 물욕에 덮혀지니 비로소 그 이치가 어두워짐이라. 서로 친하지 못하고 서로 따라가지 못함이 이로부터 함이라.¹⁵⁾

송당은 오류가 발하게 되는 마음자리에 주목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백록동규해」를 서술하였다. 송당이 말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연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는 본 문장을 통해 명확해진다. “기질에 치우쳐 가려지고 물욕에 덮혀지니 비로소 그 이치가 어두워짐이라”는 구절은 주자가 명덕을 설명한 『대학』의 구절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백록동규해」에서 말하고자하는 마음의 본연은 곧 명덕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명덕에서 오류의 이치가 나온다고 천명한 사실이다. 주자는 이미 명덕을 ‘여러 이치를 갖추어 만사에 응한다’¹⁶⁾고 뭉뚱그려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오류의 이치가 명덕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송당의 말은 주자의 내용에 조금도 위배되지는 않는다.

일재는 이미 자득을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득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있었을 것이다. 추측컨대 본 구절에서 본인의 자득처와 충돌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소위 불가적 돈오처에서는 오류가 없다.¹⁷⁾ 따라서 오류가 나오지 않게 된다. 본 내용을 접한 일재는 이전의 자득처를 부정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새로운 자득처인 명덕을 구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본 내용의 심오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본 구절을 다시 음미해 본다면 명덕을 찾기 위한 방법론 또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오류가 나오는 마음자리를 찾아감으로 인해 자연히 명덕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본 구절로 인해 일재는 명덕을 자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일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송당학파의 ‘자득 이후의 존심양성(存心養性)’이라는 의미는 ‘명덕에 대한

15) 『松堂先生文集』 1卷 11쪽: “蓋五者之理, 出於人心之本然, 非有強而後能者. 自其拘於氣質之偏, 溺於物慾之蔽, 始有味於其理而不相親愛, 不相遜順者.”

16) 『大學』 「經一章」 注: “明德者, 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17) 유가의 명덕과 불가의 돈오를 비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는 별도의 한편의 논문을 통해 제시하여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본 연구진행상 결론적 성격에서 명덕과 돈오와의 차별만을 언급하고 진행하고자 한다.

자득 이후에 비로소 존심양성(存心養性)한다'는 의미임을 본 구절을 통해 비로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내용을 고찰할 때 명덕을 자득함에 있어 별도의 선행적 수행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일반화 될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학인들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에 있어 어려울 것은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인식이 자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재의 경우 자득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은 불가적 자득에 대한 부정이 이를 뒷받침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간의 활쏘기 수련을 통해 마음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는 바탕위에서 본 내용을 접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후 이어지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 爲學之序 第 2: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辯之 篤行之(넓리 배우고, 살펴서 묻고, 삼가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고, 돈독히 행함이라)

일재는 송당의 친절한 인도에 의해 명덕을 체득하게 되었다면, 이후 위학지서(爲學之序) 2구에서는 명덕을 밝히는 절차를 배우게 된다. 이에 다섯 가지 학(學)의 단계는 명덕을 밝히는 방법으로 전환된다.

일재가 다섯 가지 학문적 차례를 통해서 명덕을 밝히고자 하였다면, 이를 통해 송당이 추구하고자하는 바는 무엇이이었을까?

한 터력의 인육의 사사로움으로 하여금 천리(天理)의 바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¹⁸⁾

인육의 사사로움은 명덕을 가로막게 되고 이로 인해 천리(天理)의 정도를 빼앗기게 된다. 즉 명덕을 밝혀야만 천리(天理)의 정도를 얻게 된다. 본 문장에서는 천리(天理)라는 궁극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문장에서는 천리(天理)에 대한

18) 『松堂先生文集』 卷1 12쪽: “不使一毫人慾之私, 得以奪乎天理之正也”

설명이 나올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3) 修身之要 제 3: 言忠信 行篤敬 懲忿窒慾 遷善改過(말은 충과 신으로 하고, 행실은 돈독히 공경하며, 성냄을 징계하고 욕심을 막고, 선으로 옮기고 허물을 고칠지니라)

1구와 2구에서는 명덕의 체득과 밝히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다면, 3구에서는 구체적 수행체계가 나오게 된다. 이에 충(忠)과 신(信)을 근본에 두어 전개하였고 징분질욕(懲忿窒慾)과 천선개과(遷善改過)를 설명하기 위해 『주역』의 손괘(損卦)와 익괘(益卦)를 첨가한 것도 천리(天理)와 명덕을 연결하기 위한 흥미로운 진행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행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송당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하다.

이에 나아가 배우면(수신을 하면) 자질이 아름다운 자는 밝게 찌꺼기(사욕)를 다하게(소멸하게) 되어 문득 혼연히 변화하여 천지와 더불어 한 몸이 될 것이며, 그보다 못한 자는 오직 굳게 경(敬)으로 잡아 길러 그 지극함에 도달하게 되면 모두 같은 것이라¹⁹⁾.

송당은 정자의 말을 빌어 수신(修身)을 통해 결국에는 마음의 본연치(명덕)와 천지가 하나 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한다. 수신(修身)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가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경지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인(仁)의 경지를 말한다. 이로써 송당이 말하고자하는 천리(天理)의 바름은 곧 인(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당은 수신(修身)을 통해 인(仁)에 도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仁)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과 버리고 머무르는 것은 수신(修身)이라는 방법론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다. 인(仁)은 수신(修身)이라는 행위적 방법

19) 『松堂先生文集』 卷1 13쪽: “卽此是學質美者, 明得盡渣滓, 便渾和却與天地同體. 其次, 惟莊敬以持養之, 及其至則一也.”

론의 연관성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이라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²⁰⁾

따라서 이에 송당은 부차적인 또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게 된다. 경(敬)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명덕을 굳게 잡아 한 치의 사욕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곧 경(敬)이 되며 경(敬)을 잡아 굳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천리(天理)에 도달하는 방법이라 주장한다.

경(敬)을 통해 얻어진 것이 인(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송당은 지극함에 도달하면 같은 것이라 말한다. 송당은 일재에게 좀 더 방법론적 수행법, 즉 경(敬)이라는 수행방법을 통해 천리(天理)와 하나 되는 경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재는 본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경(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 의문이 제기되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4) 處事之要 第 4: 正其義 不謨其利 明其道 不計其功(의를 바르게 하고 이익을 꾀하지 아니하며, 도를 밝히고 공을 헤아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자 오직 그 도를 밝히고자 할 따름이요. 일찍이 그 (얻어질 결과)공을 헤아리지 아니할지니, 공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는 즉 이는 사의(사욕)가 그 사이에 끼여 들어 그 도를 밝히지 못하게 됨이라²¹⁾

3구에서는 천지와 하나 되는 경지에 도달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고 이에 경(敬)이라는 구체적 실천방법을 제기 하였다면, 본 4구에서는 위기지학

20) 『論語』「理仁第四章」子曰不仁者 不可以久處約의 注: “謝氏曰 ‘仁者, (….) 非有所存而自不亡, 非有所理而自不亂. (….) 安仁者, 非顏閔以上去聖人爲不遠, 不知此味也. 諸子, 雖有卓越之才, 謂之見道不惑則可, 然未免於利之也.’ ”

『論語』「公治長第五」子貢 曰我不欲人之加諸我也의 注: “施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 恕也. 恕則子貢, 或能勉之, 仁則非所及矣.”

21) 『松堂先生文集』 卷1 16卒: “然, 君子, 惟欲明其道而已, 未嘗計度其功, 有計功之心, 卽是有私意, 介乎其間, 非明其道矣.”

(爲己之學)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오직 도를 밝히고자 할 뿐이요 공을 헤아리지 않는다’라는 구절은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의미한다. 공을 헤아리는 마음은 위인지학(爲人之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사지요(處事之要)가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위기지학(爲己之學)은 한훤당의 정법을 계승한 송당학파의 근간이다. 송당학파가 위기지학(爲己之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음은 한훤당의 정법을 계승한 신당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박근, 2022, 16쪽). 3구에서는 천지와 합일되는 구체적 방법론으로 경(敬)을 제시하였다면 4구에서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接物之要 第 5: 己所不欲 勿施於人 行有不得 反求諸己(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행함에 얻지 못하였거든 돌이켜 내게 구할지니라)

송당의 「백록동규해」는 본 5구로써 1장을 마무리하게 된다. 본 마지막 구에서는 송당의 「백록동규해」의 본의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5구는 인(仁)에 대한 자상한 설명에서부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인(仁)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서(恕)를 언급한다. 충(忠)과 서(恕)는 체(體)와 용(用)이며 그 극은 인(仁)이라 말한다. 송당학파의 학문의 궁극처가 인(仁)에 있음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이때의 충(忠)은 체(體)로써 위기(爲己)의 본체를 말하고 있다면 서(恕)는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용법(用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恕)는 나의 마음과 남의 마음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恕)는 위기(爲己)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용법(用法)에 해당된다. 충(忠)이 체(體)가 되고 서(恕)가 용(用)이 된다는 의미는 이러한 위기(爲己)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리의 심법인 경(敬)과 위기지학(爲己之學)을 「백록동규해」에 투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행유부득 반구저기(行有不得 反求諸己)를 설명하기 위해 중용의 12

장에서 15장까지 4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고 있다.

上에 있어 下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下에 있어 上에게 매달리지 아니하고 나를 바르게 하여 남에게 구하지 아니한 즉 원망하는 마음이 없나니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탓하지 아니함이라. 고로 군자는 편안함에 거하여 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험한 것을 행하며 요행을 기다리나니 공자 가라사대 활쏘기는 군자와 같으니 정곡을 맞히지 못하였거든 돌이켜 자신의 몸에서 (그 잘못을) 구하라 하심이라.²²⁾

앞서 위기지학(爲己之學)이 처사의 근본임을 밝혔고, 5구에서는 충서(忠恕)를 통해 위기(爲己)가 인(仁)을 얻는 구체적 방법임을 제시하였다면 본 대목에 이르러서는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제시된다. 이를 위해 『중용』을 등장시키게 되는 것이다. 상하사방 모든 곳에 응하며 조금도 남에게 구하지 않는 마음, 이를 송당은 『중용』의 중(中)으로 보았고, 이를 명덕으로 보았다.²³⁾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활쏘기로 매듭 짓고자 하였다.

「백록동규해」에서 인용한 『중용』의 12, 13, 14장은 활쏘기로 귀결된다. 이것은 『중용』을 저술한 자사(子思)의 의도이기도 하다²⁴⁾. 이때 『중용』에서 인용된 활쏘기의 의도는 내게서 구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천하의 모든 것은 내게서 시작된다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다. 즉 반구저기(反求諸己)의 의미이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무릇 활쏘기가 군자의 도와 같음이라 하시니, 왜 활을 쏘아 맞히기 아니하면 돌이켜서 (허물을) 내 몸에서 구해야 합니까?

안으로 뜻이 바르지 아니하고 밖으로 몸이 곧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조금도 남을 탓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이 말로 보건대 (활쏘기의 도는) 군자가 자리(나)를 근본하여 행하며(위기지학) 밖을 돌아보지 아니함(위인지학을 하지 아니함)과 무엇이 다르리오²⁵⁾

22) 『松堂先生文集』 卷1 18쪽: “在上位, 不陵下, 在下位, 不援上, 正己而不求於人, 則無怨, 上不怨天, 下不尤人. 故君子, 居易以俟命. 小人, 行險以徼行. 子曰 “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己身.”

23) 『松堂先生文集』 卷1 19쪽: “中也者, 天下之大本, 明德之事. 和也者, 天下之達道, 新民之事.”

24) 『中庸』 「14章」 45쪽: “子思, 引此孔子之言, 以結上文之意”

25) 『四書備旨』 『中庸』 권1 57쪽: “孔子有言曰 ‘凡人之射有似乎君子之道, 何則射而失諸

활쏘기를 군자의 도로 볼 수 있는 것은 반구저기(反求諸己)로 인해서이다. 허물을 내게서 구하는 자세가 허물을 남에게서 구하는 소인과는 차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문맥에서 인용되는 반구저기(反求諸己)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일재는 활쏘기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음은 체득하고 있었다. 따라서 활쏘기를 하는 순간에는 당연히 반구저기(反求諸己)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문장에서 사용된 반구저기(反求諸己)의 의미는 4구 처사지요(處事之要)에서 제시된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인해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설명하는 의미로 전환된다. 반구저기(反求諸己)가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진일보 된 것이다.

일재는 활쏘기를 통해 반구저기(反求諸己)를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재에게 반구저기(反求諸己)와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연결시켜 주게 된다면 도학의 핵심 중 하나인 위기지학(爲己之學)은 당연히 체득할 수 있게 된다. 이전의 일재에게 있어서 반구저기(反求諸己)는 활 쏘는 상황에서만 이루어졌다면, 반구저기(反求諸己)가 곧 위기지학(爲己之學)임을 인식한 순간, 심법으로써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은 모든 행위와 사고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제 명덕을 체득하였고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체득하였다면 지금의 일재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은 도달하여야 할 경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될 것이다.

또 어찌 원망하고 탓함이 있으리오(어찌 위인지학을 하리오)? 이 (원망하고 탓함이 없는 마음의) 자리(위기지학)에 들어가면 군자의 마음이 씻은 듯 하여 영롱한 참됨이 밝아지리니 마치 맑게 개여 한 점 구름이 없는 달과 같아 한 터럭의 사사로움도 없게 되리라²⁶⁾.

송당은 일재에게 새로운 경지를 제시한다. ‘군자의 마음이 씻은 듯 하여 영롱한 참됨이 밝아지리니 마치 맑게 개여 한 점 구름이 없는 달과 같아 한 터

正與鵠則反求於吾身? 以爲內志未正, 外體未直, 而初無尤人之心也.’ 觀於此言, 而君子之素位而行, 不願乎外, 何以異哉?“

26) 『松堂先生文集』 卷1 18쪽: “又何怨尤之有? 此處, 見君子胸中, 多少灑落明瑩眞, 如光風霽月, 無一點私累.”

력의 사사로움도 없게 되리라'의 상기 문구는 천리(天理)와 하나 된 경지를 말한다. 상기 송당이 제시한 경지가 인(仁)을 말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인(仁)은 아니지만 천리(天理)에 도달한 또 하나의 경지, 태극의 경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경(敬)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경지는 태극을 말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을 끝으로 「백록동규해」의 1장을 마무리 한다.

射有不中 只是自責 如君子行有不得 反求諸己²⁷⁾.

활을 쏘아 맞이지 못하였으면 단지 스스로를 꾸짖는 것이요. 군자 행하여 얻지 못하였으면 돌이켜 내게 구하는 것이다.

본 문장은 「백록동규해」의 마지막 구절로 활쏘기를 다시 한 번 등장 시키며 1장의 규해를 마무리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구절은 「백록동규약」 전체를 마무리 짓는 결론적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다시 활쏘기를 등장 시키며 문장을 귀결시키고자 한다.

문장의 결말에 다시 한 번 반복되어 나타난 활쏘기의 인용에는 분명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문장은 매우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사유불중(射有不中)'와 '군자행유부득(君子行有不得)'이 대를 이루고 있고 '지시자책(只是自責)'과 '반구저기(反求諸己)'가 대를 이루고 있다. 두 문장은 서로 도치되어 서술되어 있다. 본래는 '사유불중(射有不中)'와 '반구저기(反求諸己)'가 한 구가 되고 '군자행유부득(君子行有不得)'과 '지시자책(只是自責)'이 한 구가 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이미 앞서 인용한 『중용』의 문장에서는 '실저정곡(失諸正鵠)이면 반구저기(反求諸己)'라는 문장을 통해 '활쏘기'와 '반구저기(反求諸己)'가 한 문장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송당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특별한 의도를 첨부하였을 것이 추론된다. 이 문장을 원래의 문장으로 되돌린다면 이렇게 서술할 수 있다.

27) 『松堂先生文集』 卷1 18쪽

射有不中 反求諸己 如君子行有不得 只是自責

활을 쏘아 맞히지 아니하면 돌이켜 내게 구함이 군자가 행하여 얻지 못하면 스스로를 꾸짖는 것과 같다

이렇게 문장을 구성한다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문장이 바뀌었다하여도 의미 상 차이는 없다. 이미 활쏘기의 도가 군자의 도와 같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문장이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문장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구태여 앞에서 언급했던 동일한 내용을 이유 없이 되풀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속에 중의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 추론해보는 이유이다.

따라서 그 의도를 유추해 본다면, 지금까지 서술된 「백록동규해」는 군자의 도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 활쏘기의 도가 군자의 도임은 이미 앞서 언급된 바 있으며 일반적 범주에서도 통용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된 활쏘기의 도가 군자의 도와 같다는 표현은 비유적 표현이었다. 활쏘기가 군자의 도에 견줄 만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활쏘기와 군자의 도가 같은 범주에서 대등하게 다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문장을 도치함은 군자의 도와 활쏘기의 도가 대등함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군자의 도가 곧 활쏘기의 도요, 활쏘기의 도가 군자의 도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군자의 도와 활쏘기의 도가 대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재는 지금의 이 구절로 인해 활쏘기의 도가 곧 성리의 도였음을 자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활쏘기를 통해 익혔던 차례가 곧 성리의 도를 익혔던 차례가 된다. 바로 활쏘기를 통해 얻었던 자득이 성리의 자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백록동규해」는 활쏘기의 도와 하나로 합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백록동규해」를 다시 돌아보면 「백록동규해」의 모든 조목은 활쏘기의 조목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백록동규해」의 구조는 결국에

는 위기지학(爲己之學)과 경(敬), 그리고 태극이라는 경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재는 활쏘기를 통해서 ‘군자의 마음이 씻은 듯 하여 영롱한 참됨이 밝아지리니 마치 맑게 개여 한 점 구름이 없는 달과 같아 한 터럭의 사사로움도 없게 됨’에 이미 도달했어야 한다. 그러나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백록동규해」의 설명으로 인해 비로소 활쏘기에서 느꼈던 경지가 바로 태극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된 도학의 핵심은 위기지학(爲己之學)과 경(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활쏘기를 통해서 습득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수 천 권의 서책보다 활쏘기를 통해서 더 자상히 익힐 수 있다고 하여도 조금도 과언이 아니다.

일재는 그간의 활쏘기를 통해 부지불식간에 이미 위기지학(爲己之學)과 경(敬)이라는 성리의 심법을 체득하고 있었고 태극의 경지 또한 체득하고 있었다. 다만 그것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러한 체득은 다만 활 쏘는 순간에만 국한되어 있었을 뿐이다.

만약 살핀 즉 경(敬)이 자연히 생기고 능히 경(敬)을 하면 문득 존양이 되니, 존심양성법은 다름이 없음이라. 경(敬)을 잡아 성성함이 이에 가까우니라.²⁸⁾

이어 나오는 본 구절로 인해 활쏘기와 성리의 도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명확해진다. 상기 구절은 활쏘기의 도를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성리의 도를 말하는 것이다. 본 구절로 인하여 「백록동규해」를 일재와의 전승 텍스트로 삼게 된 송당의 의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구절을 통해 송당학파의 자득이후의 존심양성(存心養性)이라는 전승체계도 명확해 지게 된다. 송당학파의 존심양성(存心養性)은 성(省)²⁹⁾ 이후에 경(敬)이 생겨나고 이때 경(敬)을 잡아 성성(惺惺)한 상태, 태극에 도

28) 『松堂先生文集』 卷1 19쪽: “纔省則敬自然生, 能敬便存養, 存養之法, 無他. 持敬惺惺, 近之矣.”

29) 『松堂先生文集』 卷1 19쪽: 省克云者 省察心上에서 省은 반구저기의 의미이다.

달하는 과정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송당에게서 자득의 의미는 학문적 성향을 의미하는 것에 가깝다 할 수 있다. 타 학파에 비해 자득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명덕과 위기지학(爲己之學), 경(敬) 등의 성리의 중요한 개념이 단지 글자로 끝나서는 결코 학문의 궁극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자득해야만 이후 이를 잡고 익히는 존심양성(存心養性)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당은 일재에게 이를 자득케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자 하였다. 결국 활쏘기 속에 이러한 기미를 발견하였고, 이를 성리의 자득으로 연결시키게 된다. 이러한 의도에서 「백록동규해」가 저술된 것이다.

반면에 『소학』의 일반적 학풍은 존심양성(存心養性)이후에 자득함을 주장한다.

반드시 그 어릴 때에 그 외우고 익힘은 그 익힘이 지혜와 더불어 자라나 마음과 더불어 이루어져 화하게 하고자 함이니 그 막히어 이기지 못할 근심이 없게 하고자 함이라³⁰⁾

『소학』 「서제」에서는 ‘어릴 때에 부지런히 경서를 외우고 실천하게 하여, 익힌 것이 점차 지혜와 더불어 조금씩 자라나게 되면서 나중에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 즉 자득에 도달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어릴 때에 기질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미 자라나 버린 기질 때문에 마음의 본체가 가로막히게 되어, 결국에는 마음의 본체를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비록 학문을 통해 명덕을 배운다고 하여도 지식에 불과할 뿐 자득에는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양 학맥의 차이점은 자득이 선행되느냐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어느 학파의 방식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단지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자득이 선행된 이후에 존심양성(存心養性)이 더욱 진실해 지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보편적 수행법이 되기에는 소학파의 수련법이 타당하다는 것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30) 『小學』 「書題」: “必使其講而習之於幼稚之時, 欲其習與智長, 化與心成, 無汗格不勝之患也.”

「백록동규해」를 통해 일재에게 자득시키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활쏘기의 경우는 활을 쏘기 위해서는 이미 반구저기(反求諸己)가 근간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기(己)를 알지 못하고서는 활쏘기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己’는 곧 ‘마음’으로 귀결된다. 이에 송당은 「백록동규해」 1구에서 기(己)의 실체, 즉 오류가 발하는 마음의 실체가 바로 명덕이었음을 제시해 주었다. 이는 일재가 이미 활쏘기를 통해 마음의 실체를 자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명덕을 자득한 이후의 활쏘기의 반구저기(反求諸己)가 위기지학(爲己之學)이었으며, 위기지학(爲己之學)을 통해 자연히 경(敬)이 나오게 되고 경(敬)을 잡아 태극에 도달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일재는 이미 활쏘기 수련을 통해서 자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송당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활쏘기를 통한 이러한 수행은 단지 명궁이 되기 위한 활쏘기 수련법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송당의 「백록동규해」를 통해 비로소 활쏘기에서의 자득이 성리의 자득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백록동규해」는 활쏘기의 수련 속에 체득되었던 위기지학(爲己之學)과 경(敬)과 태극에 대한 자득을 도학의 자득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한 구조인 것이다.

6) 子曰 參乎 吾道는 一以貫之라 曾子曰 唯라(공자 가라사대 증자야 우리 도는 하나로써 꿰었느니라. 증자 가로되 알겠습니다.)

「백록동규해」 1장을 마치고 이어 송당은 두 구를 첨부하여 새로이 2장을 만든다. 새로이 2장을 추가한 것은 송당이 말하고자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추가된 1구는 우리의 도는 하나로 꿰꿨었다는 것이요, 2구는 치국(治國)의 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경(敬)을 잡아 성성한 상태, 태극의 경지에 도달한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 본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송당의 의도는 서책을 통해 존심양성(存心養性)을 했느냐 활쏘기를 통해 존심양성(存心養性)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경(敬)을 잡아 태극을 전득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송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것은 일이관지(一以貫之)에 도달하였는가에 있다.

비록 서책의 학문적 차제를 밟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본연처를 그릇되게 얻었다면 이 도는 허무적멸에 빠지고 말 것이며, 활쏘기라도 마음의 본연처를 제대로 얻었다면 이 도는 일이관지(一以貫之)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도학의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송당이 제시하는 일이관지(一以貫之)는 무엇을 말하는가?

7) 顏淵이 問爲邦호되 子曰行夏之時하며 乘殷之輅하며 服周之冕樂則 韶舞放鄭聲遠佞人이라 鄭聲淫이요 佞人殆라(안연이 나라 다스림을 물으니 공자 가라사대 하나라의 때를 행하며 은나라의 수레를 타며 주나라의 면류관을 입으며 음악인 즉 소무요 정나라 소리는 내치고 아첨하는 사람은 멀리 함이라. 정나라 소리는 음란하며 아첨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니라)

이 두 구절은 논어의 가운데에서 얻어 백록동규해의 끝에 쓰니 학자에게 보이고 자 하는 것은 대개 능히 이 규를 행하면 이 일이관지의 묘가 밝아지게 되어 이를 달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도가 가할 지니라³¹⁾.

본 문장을 통해 송당이 말하고자 하는 일이관지(一以貫之)는 『대학』의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가 하나로 꿰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격물(格物)과 평천하가 하나로 꿰어진 것, 격물(格物)이 격물(格物)을 위한 격물(格物)이 아니라, 격물(格物)이 곧 평천하(平天下)이며, 수신(修身)이 곧 평천하(平天下)인 것을 일이관지(一以貫之)로 본 것이다³²⁾.

31) 『松堂先生文集』 卷1 19쪽: “右二章, 得論語中, 書諸規末, 以示學者, 蓋能行此規而曉此一貫之妙, 達此爲邦之道, 方可.”

송당은 활연관통(豁然貫通)을 하였을 지라도 치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일이관지(一以貫之)라 볼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본 구절을 첨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위 불가적 자득은 대학의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로 향하지 않게 된다³³⁾. 만약 일재의 자득처가 바르다면 이는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가 하나로 껴어져야 하는 것이다.

8) 송당의 주해

말미에 2구를 덧붙여 송당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면 이후의 문장은 「백록동규해」에 대한 본인의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앞의 「백록동규해」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원칙에 의하여 사서삼경의 인용만으로 문장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본 문장은 직접 저술한 문장이다. 따라서 「백록동규해」에 대한 송당의 직접적인 관점을 읽어낼 수 있는 문장이다. 이를 통해 송당의 본지를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본 내용에서도 송당은 앞의 내용을 활쏘기로 귀결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활쏘기는 앞서 언급된 내용에 비해 태극에 도달하는 과정을 더욱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성신(誠神)의 묘는 가히 언어로써 형상하지 못함이라. 배우는 자는 규해에서 신중히 동정(動靜)의 사이를 살펴 자득함으로써 뜻을 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할 지니(…) 맹자 가라사대 군자는 (활쏘기를) 인하여 발하지 아니함에 약여(躍如: 솟아올라)하여 도의 한 가운데 섬(얻어짐이 있으리니)이니 능한 자는 쫓을 지어다.³⁴⁾

『맹자』 「진심장」에서의 본 구절의 의미는 도의 전승이 언어문자로써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32) 『松堂先生文集』 卷2 「大學經一章演義」: “治國平天下, 與誠意正心修身齊家, 只是一理.”

33) 『松堂先生文集』 卷2 「大學經一章演義」: “欲以徑超頓悟爲事者, 佛老之學是已, 烏識吾儒之所謂大學哉?”

34) 『松堂先生文集』 卷1 20쪽: “其誠神之妙, 有不可得以言語, 可狀者也. 爲學者, 謹於規解, 察於動靜之間, 以自得爲志, 思之又思(...) 孟子曰 ‘君子, 引而不發, 躍如也, 中道而立, 能者從之.’ “

위해 사용되었다. 이를 위해 활쏘기를 비유로 들었다. 따라서 본 구절의 표면적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도의 전송은 언어로써 형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자득을 중시해야 하며, 이는 활쏘기에서 법을 터득하는 방식과도 같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내용은 ‘도라는 것은 활쏘기의 묘를 터득하는 과정과도 같이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는 비유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 문장을 이곳에 인용함으로 인해 『맹자』 「진심장」과는 다른 의도로 전환된다. 즉 ‘성신(誠神)의 묘는 가히 언어로써 형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활쏘기의 인하여 발하지 아니함에 약여(躍如)하여 도의 한 가운데 섬이니’라는 문구를 접하였을 때, 만약 활쏘기에 매진하지 않은 이들이 본 문구를 접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비유적 의미 이상으로는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재는 이 상태, 인하여 발하지 아니한 상태, 곧 발시 직전의 상태에서 ‘약여(躍如)하여 도의 한 가운데 선다’는 의미에 주목하게 되었을 것이다.

약여(躍如)는 도리의 활발발지(活潑潑地)라³⁵⁾

주자는 약여(躍如)를 활발발지(活潑潑地)로 보았다. 이때의 활발발지(活潑潑地)는 도의 미묘처, 태극을 의미한다. 송당이 제시한 천리와 합일된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맹자』의 ‘약여야(躍如也)’를 재해석한다면, 활을 가득 당겨서 멈춘 상황에서 홀로 활발발지(活潑潑地), 태극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약여야(躍如也) 이후에 중도이입(中道而入)’의 의미는 활발발지(活潑潑地)를 음미한 이후에 도의 한 가운데, 태극에 도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구절로 인해 활쏘기의 인하여 발하지 아니한 상태에 주목하게 된다. 인하여 발하지 아니한 상태, 발시 직전의 상태, 완벽히 정지된 상태, 완벽히 집중이 이루어진 상태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완벽한

35) 『孟子』 「盡心章」 63쪽: “躍如, 是道理, 活潑潑地.”

위기지학(爲己之學), 주일무적(主一無適), 즉 경(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약여야(躍如也) 즉 활발발지(活潑潑地), 그리고 중도이입(中道而入) 한다는 것이다.

송당은 마지막으로 활쏘기의 경(敬)과 성성지처(惺惺之處)인 태극에 대해 부연 설명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경(敬)과 태극을 설명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설명이 있을까? 아마도 불가의 선(禪)과 유가의 경(敬)을 완벽히 구별할 수 있는 백척간두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불가의 선(禪)은 정(靜)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면, 유가의 태극은 경(敬)을 잡음으로써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경(敬)은 무엇인가? 그간 막연했던 경(敬)의 의미를 송당은 활쏘기의 발시 직전의 완벽한 정지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활쏘기의 발시 직전의 정(靜)의 상태는 선(禪)의 정(靜)과는 다르다. 선(禪)의 상태는 고요하고 고요하여 고요함의 극의 상태라면, 활쏘기의 발시 직전은 동하고 동하여 동함이 극에 도달한 상태이다. 양자가 정(靜)에 도달한 것은 동일하지만 활쏘기의 발시 직전의 정(靜)은 동함의 극의 상태이다. 이것이 곧 경(敬)이다. 그리고 이 상태, 동(動)의 극의 상태,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에 의해 정지된 상태가 바로 태극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그리고 홀연히 일이관지하게 되는 것이다.

정(靜)을 잡았는가 경(敬)을 잡았는가에 따라 도달하는 도의 경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즉 경(敬)을 잡아야만 태극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일재는 그간의 활쏘기 수련을 통해 태극에 도달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태극인가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도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구절을 통해 일재는 활쏘기를 통해 얻어진 성성지처(惺惺之處)가 곧 태극이었음을 명확히 깨달게 된다.

경(敬)은 이 下手處(손을 처음 대는 곳)요. 경(敬)은 시작이요 마침이라³⁶⁾.

「백록동규해」의 마지막 구절에서 송당은 결국 행할 것과 잡아야 할 것은

36) 『松堂先生文集』 卷1 20-21쪽: “敬, 是下手處, 敬, 是成始成終.”

경(敬) 한글자라고 주장한다. 위기지학(爲己之學)은 경(敬)을 하기 위함이고, 존심양성(存心養性)은 경(敬)을 잡는 것이요, 일이관지(一以貫之)는 경(敬)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경(敬)은 도학의 시작이며 끝이다. 펼치면 팔조목(八條目)이요, 합치면 명덕이며, 이는 모두 경(敬)을 잡음에 있다. 따라서 이 구절로 송당의 「백록동규해」는 모두 끝이 난다. 송당의 「백록동 규해」는 경(敬) 한글자만 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활쏘기에서 경(敬)을 잡고 활발발지(活潑潑地)를 음미하였다면, 「백록동규해」를 통해 활쏘기의 도와 성리의 도가 하나가 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일재는 활을 잡지 않은 일상에서도 경(敬)을 잡고 활발발지(活潑潑地)를 음미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일재가 문을 닫아걸고 주득깁진편벽지공(做得喫緊鞭辟之工; 도의 긴요한 곳을 얻고 음미하여 더욱 채찍질하다)에 힘쓴 것이 이것이다.

훗날 집으로 돌아간 일재는 선조의 산소가 있는 정읍 태인으로 내려가 조그만 집을 짓고 편액을 건다. 그런데 편액이 특이했다. 한일 [一] 한 글자만 써놓은 것이다.

급히 작은 집을 지어 학문을 익힐 장소로 삼고 재실의 편액이름은 일(一)로써 하니 학자들이 일재선생이라 일컬었다. (...) 정자와 주자의 책 등 여러 책을 읽는 것에는 힘쓰지 아니하였고 굳게 (활발발지를) 음미하고자 하였으며 온전히 공맹으로써 표준을 삼았다(...)37)

송당에게서 수학하고 돌아온 직후로 확인되는 본 문장에서는 편액에 한일 [一] 자 한 글자만 써 놓고, 많은 서책을 물리치고 마음의 긴요처를 만끽하는 일재의 모습을 담고 있다. 경(敬), 주일무적(主一無適), 즉 한일 [一] 자를 붙잡겠다는 일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후 더욱 경(敬)에 매진하여 태극의 심의를 터득했으며, 이를 통해 ‘태극이기혼물설(太極理氣混物說)’이라는 독득지론(獨得之論)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퇴계, 남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유(巨儒)가 된다.

37) 『一齋先生文集』 91쪽: “亟築小屋, 爲藏修之所, 扁齋以一學者, 因稱一齋先生, 先生, 自非祀謁之日, 未嘗不在是, 自以不幸過時, 不務汎濫程朱諸書, 儘好喫緊, 全以孔孟爲標準.”

송당과 일재간에 전승된 도의 본의는 공맹의 자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도학과에서 외면되어있었던 송당학과에게서 도학의 정통을 찾게 되는 순간이라 생각된다.

일재에게 있어 「백록동규해」는 친절하고 자상한 글이다. 본 연구자가 읽기에도 이렇게 자상하고 간절할 수가 있을까 생각되었다. 성리의 본지를 위기지학(爲己之學)과 경(敬)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미 활쏘기에 내재되어 있었음을, 그리고 경(敬)을 통해 들어가는 태극의 경지까지를 너무나도 자상히 설명해 놓고 있다. 이렇게 자상한 글을 무미건조하다 말하고 있는 타 제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하였을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백록동규해」라는 텍스트는 활쏘기에 매진한 이들을 위한 도학 전승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일재와 그리고 궁사(弓士)들을 위한 글이었던 것이다.

V. 결론

「백록동규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일재의 익각친절(益覺親切)의 의미를 거듭 깨닫게 되었다. 송당은 제자 일재 이항을 위해 본인의 모든 도학을 「백록동규해」에 실었다.

일재 이항은 험객에서 일신하여 간절히 구도를 갈망하며 먼 길을 찾아 송당 앞에 마주하게 된다. 이 30대의 풍운아를 앞에 두고 60대의 노선생은 자신의 젊은 날을 회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재에게 많은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본인의 도학을 전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다. 일재의 자득이 가상하기는 하지만 도학의 정도를 잡지는 못하였고, 불가적 선미만이 가득했으며, 학문적 서차는 미진하였을 것이다. 이에 제자의 기질에 맞는 새로운 학문적 차제를 개발하게 된다.

당시까지 「백록동규약」에 주해를 한 이는 없었다. 「백록동규약」은 일재가 스물여덟 되던 해에 처음 작성을 했던 글이었고, 이후 일재는 정작 서론이 되어야 학문을 시작하게 된다. 이런 여건으로 인해 어려서부터 글을 읽어온 다른 학인과 견주어 볼 때 사서삼경의 학문적 서차를 밝기에는 무리가 있었

을 것이다. 그렇다고 학문적 정도를 간과할 수가 없었기에 송당은 일재를 위해 「백록동규약」 속에 사서삼경을 망라하고 요약하여 「규해」를 달아 보여주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활쏘기를 통해서 일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위기지학(爲己之學)과 경(敬), 그리고 미미하지만 태극의 경지를 이끌어 내어 성리의 도와 합일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이 함축된 것이 바로 「백록동규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송당이 일재에게 전해준 「백록동규해」는 활쏘기가 곧 도학이며 도학이 곧 활쏘기임을 일깨워주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활쏘기 자체가 도학의 모든 구조를 함유한 도학의 텍스트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강호 김숙자의 학규에서는 활쏘기가 『대학』, 『중용』과 같은 여러 도학 텍스트 중의 한가지로써 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근, 2020a). 그러나 이는 활쏘기가 도학의 주된 텍스트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도학의 텍스트를 보조하는 성격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송당의 「백록동규해」로 인하여 활쏘기 자체가 도학전승의 주된 텍스트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당시 일재의 나이가 삼십대로 추정되니 시기적으로는 1530년경이 될 것이다. 「백록동규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도학은 소학과 더불어 활쏘기라는 또 하나의 실천적 수행체계를 정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무인을 위한 도학의 전승구조가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투 고 일 : 2022년 10월 11일 / 심사위원선정일 : 2022년 12월 7일 심사완료일 : 2022년 12월 26일 / 게재 확정 일 : 2022년 12월 28일

〈참고문헌〉

『논어』

『석담일기』

『송당선생문집』

『일재선생문집』

『퇴계문집』

『대학집주』

『맹자집주』

『사서비지』

『소학집주』

『주역집주』

『중용집주』

김성우. 「15세기 중 후반 -16세기 도학운동의 전개와 송당학파의 활동」. 『역사학보』 202, 2009.

김학수. 「조선후기 영남지역 사족 가문의 학파 정파적 분화와 그 존재양상」. 『한국사학보』 38, 2010.

김훈식. 「한훤당 김굉필에 대한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 『영남학』 22, 2012.

김훈식. 「한훤당 김굉필의 문인록에 대한 검토」. 『역사와 경계』 96, 2015.

권상우. 「신당 정봉 도학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 논집』 65, 2016

박 근. 「활에 내재된 도학의 전승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24(4), 2019.

박 근. 「도학의 전승구조로써의 전통 활쏘기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9(4), 2020.

박 근. 「송당학파의 자득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88, 2022.

이구의. 「신당 정봉 삶과 그의 시에 나타난 자아의식」. 『한국사상과 문화』 73, 2014.

장윤수. 「송당 박영의 도학적 학풍과 성리학적 사유」. 『한국학논집』 66, 2017.

차장섭. 「신당 정봉의 생애와 정치사상적 역할」. 『국학연구』 23, 2013.

황지원. 「송당학파의 도학정신에 내재된 사상적 특성」. 『동아인문학』 45, 2018.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mission Structure of Neo-Confucianism between
Songdang Park Young and Iljae Lee Hang
- Focusing on 「Baeknok-dong Gyuhae」-

Park, Gun

If the Sohak school values the academic system centered on mind training, the Songdang school emphasized enlightenment on its own and tried to pass on Neo-Confucianism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Through previous studies, this academic tendency of Songdang School could be recognized as the right law of Neo-Confucianism compared to scholars at the time when it was biased toward books. However, the absence of mental discipline before enlightenment has not been clearly explained. In the case of Songdang and Iljae, it can be confirmed that martial arts training was preceded before enlightenment because they were the best martial artists of the time. However, it became necessary to examine in detail how martial arts training can replace mind training and how martial arts training and Neo-Confucianism are related. To this end, attention was paid to 「Baeknok-dong Gyuhae」, which was the transmission text of Neo-Confucianism between Songdang and Iljae. It was discovered that 「Baeknok-dong Gyuhae」 has a structure that can connect archery and Neo-Confucianism as one. As a result, it is thought that the Songdang School should be recognized as another orthodoxy of Neo-Confucianism with a separate Neo-Confucian transmission structure.

Keywords : Songdang School, 「Baeknok-dong Gyuhae」, Archery, Songdang Park Young, Iljae Lee Hang.